

Thematic Radar

Ep. 16 수출규제 강화와 반사이익

-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마찰 지속. 각국의 약점을 노린 AI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 다만 반사이익도 기대. 희토류 수출제한은 미국내 희토류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며 생산 기업들은 수혜
-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강화는 중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 중국 반도체 산업에 관심 필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주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높인 이후 추가 관세율 인상은 부재했지만, 이제는 핵심 자원 통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경우 이번주 디스프로슘(dysprosium)을 비롯한 7개 핵심 중희토류(HREE) 물질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의 허가(license)가 요구되며, 수출은 허가 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예정이다. 미국은 필요한 희토류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미국의 첨단 AI칩 및 장비, 무기, 전기차 등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인 AI칩 수출 강화에 나섰다. 최근 딥시크 발표 등 AI모델 방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인 중국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력과 5~10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전용 칩인 H20 및 동등한 성능의 칩 판매를 제한했고, AMD의 MI308 제품군, 인텔의 가우디 시리즈를 비롯해 DRAM 대역폭(bandwidth)이 1,400GB를 초과하는 칩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는 수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들로 인해 주식시장내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미국내 희토류 밸류체인이다. 미국은 24년부터 자국내 희토류 생산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100%에 달하던 수입 의존도(2020년)를 현재 80%까지 낮췄다. MP Materials가 운영하는 미국내 최대 희토류 광산인 Mountain Pass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된 결과로, 정제(refining) 캐파도 40%까지 끌어올리며 최근 자체적으로 영구 자석 판매를 시작했다. 한편 AI칩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도 자체 AI칩 개발에 더 집중할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년 7% 가까이 하락한 엔비디아와는 달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다 중국의 자체 AI개발 작업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SMI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1. 중국의 국가C회로 산업 투자자금 출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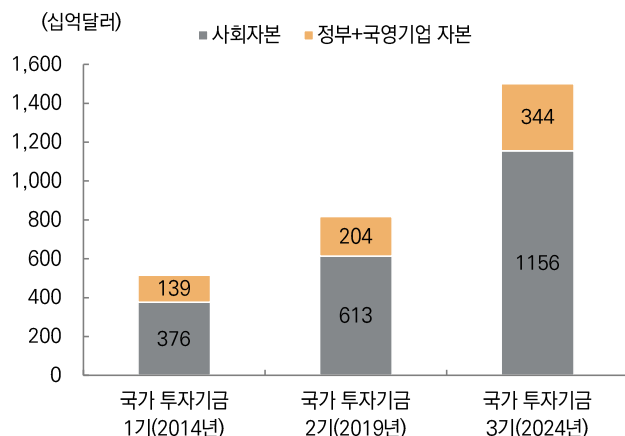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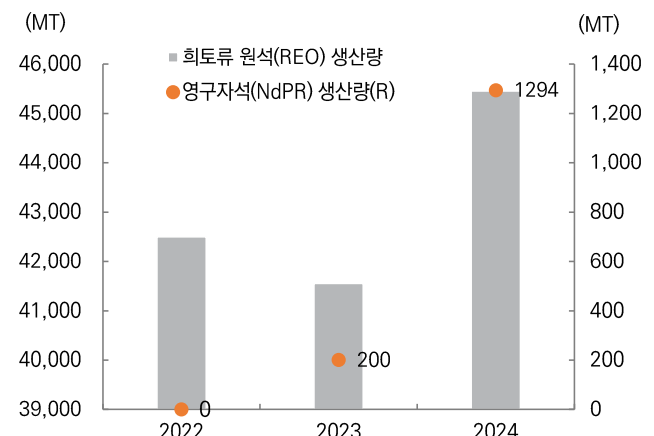


그림 2. 빠르게 올라오는 미국 희토류 생산량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